



광주호 생태체험 25일 광주호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 일원에서 열린 '광주시 북구 체험환경교육'에서 참가 학생들이 습지를 둘러 수종식물을 살펴보고 있다. /최정혜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붕어 먹어도 될까

물고기 체내 축적 화학물질, 퇴적물·하천수보다 많아

환경부, 순천 상사호 등 5곳 '과불화합물' 잔류조사

영산강과 순천 상사호 등에서 잡힌 붕어를 먹어도 될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은 25일 지난해 영산강, 순천 상사호를 비롯, 낙동강, 진주 남강, 북한강 등 5개 강에 사는 붕어와 하천수·퇴적물에 대한 '과불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PFCs)' 10종의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붕어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이 퇴적물·하천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산강과 상사호에 서식하는 붕어에 축적된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붕어의 간에서는 5개 강 평균 0.16~11.11ppb(ppb·ng/g)의 과불화합물이, 붕어의 혈액에서는 1.72~48.

23ppb(ppb·ng/ml)가 검출됐다. 붕어 간에서 검출된 과불화합물 수치는 5개 강 퇴적물의 평균 수치 0.02~0.57ppb(ppb·ng/g)의 최대 550배에 달한다. 과불화합물이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 과정을 거친 하루 60만t의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영산강의 경우 붕어의 간에서 2.41~11.11ppb(ppb·ng/g) 범위의 과불화합물이 검출돼 조사 대상인 5개 강 중 가장 높았다.

승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상사호에서도 붕어의 간에서 1.36~4.42ppb(ppb·ng/g)의 과불화합물이 검출됐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재로는 인체에 과불화합물이 축적되는데 따

른 유해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 혈액 내 단백질 응고, 환경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신호 이상 유발, 발암효과 등의 유해성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과불화합물의 완벽한 처리가 어려운 만큼, 영산강 등지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의 섭취는 자제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과불화합물 =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물질로 중합체 첨가물, 방화제, 살충제, 페인트, 식품포장재, 샴푸 및 개인위생용품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 인공 화학물질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알래스카 북극곰에서도 발견된 만큼 축적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 차량기지 건설공사 성토재

火電 폐기물 사용 논란

국책사업 건설공사의 부지조성 성토재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주)대림산업에 따르면 31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대림산업은 이 과정에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S건설을 통해 현재까지 2만㎡를 공급받는 등 총 5만㎡를 기반조성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다. 해당 석탄재는 구조적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토사와 5:5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대림산업측은 석탄재를 토사와 전혀 혼합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등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국책사업 현장이 부실시공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해당 석탄재의 경우 배출자인 하동화력발전소측이 운반비 명목으로 S건설측에 m²당 1만7000원을 지급한 반면 시공사측은 고작 m²당 1500원만 지급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이익까지 얻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주변에 토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석탄재를 사용하게 됐다"며 "6개월전부터 충분한 검증시험을 거쳐 사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폐기물인 석탄재의 경우 알부 성토나 복토용으로 사용돼 지난해 새만금산업단지에서도 매립토로 사용을 추진했으나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인권상'에 아르헨티나 인권단체 'H.I.J.O.S'



아르헨티나 인권단체 '망각과 침묵에 대하여 정체성과 정의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딸들'(Hijos e Hijas por la Identidad y la Justicia el contra el Olvido y el Silencio·H.I.J.O.S·로고사진)이 '2013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2013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25일 오전 5·18 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J.O.S'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I.J.O.S'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기(1976~1983)에 실종·

처형·투옥되거나 억압을 피해 망명했던 시민들의 자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로 지난 1995년 창립한 뒤 인권유린 실태조사, 진실 규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특별상에는 부당한 권력과 부패를 고발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언론으로, 한 때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행이 금지당하기도 했던 주간지 템포(Tempo)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8일 오후 4시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미화 5만 달러와 금장 메달, 상장이 수여된다. /이정혜기자 golee@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7분 해질 19시 14분 달돋이 19시 52분 달질 05시 48분

주말 비소식 맑은 가운데 토요일 비온 뒤 구름 많았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6/19°C
목포	맑음	6/16°C
여수	맑음	8/17°C
나주	맑음	5/19°C
완도	맑음	8/18°C
구례	맑음	5/19°C
강진	맑음	6/18°C
해남	맑음	6/17°C
장흥	맑음	6/18°C
순천	맑음	4/18°C
영광	맑음	5/17°C
진도	맑음	6/16°C
전주	맑음	5/18°C
군산	맑음	5/15°C
남원	맑음	3/18°C
홍산도	맑음	8/14°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김기수 주의 높음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토)	28(일)	29(월)	30(화)	5/1(수)	2(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5/18	9/23	11/19	13/20	8/18	7/18

지리산 노고단~천왕봉 종주코스 내달 개방

입산통제 구역 해제 남부사무소는 종주능선 개방으로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시설물 점검 등 준비에 들어갔다.

남부사무소 윤지호 탐방시설과장은 "입산통제가 해제됐다고 산불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며 "국립공원 지역에서 흡연, 쓰레기나 논두렁 소각 행위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www.kjhr.com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평말해남에서 시작하는 **아름다운 여행**

제18회 **흑석산 철쭉제**
일시: 2013. 5. 4.(토)
장소: 해남군 계곡면 가학산 자연휴양림 일원
주요행사: 축하쇼, 철쭉사진촬영, 어린이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

제22회 **초의문화제**
일시: 2013. 5. 3(금)~5. 4(토)
장소: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일원
주요행사: 한궁다례, 제22회 초의상 시상식, 녹차만들기체험 및 경연, 우리고장 으뜸차 품평회 등

평말해남에서 제주까지 새로운 뱃길이 열렸습니다.
해남우수영 ↔ 제주간 쾌속선 운항
운항시간 (2시간 30분)
해남우수영항 → 제주항간: 출발 14:40 (도착 17:10)
제주항 → 해남우수영항간: 출발 09:00 (도착 11:30)
정원 574명 (승용차기준 76대)

해남에 오셨으면 꼭 드셔야 할 추천 음식

해남군 Haenam County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화합의 해